

相生과 共生の 건설산업을 기대하며



조기호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위원장(환경이엔지(주) 대표이사)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그 중 우리의 영역인 건설산업은 단연 相生(共生)을 기초로 한 동반성장 분위기 속에서 경제민주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더 나아가 갈등만 초래한 것 같다.

최근 모 일간지의 '건설산업 한계상황에 직면'이라는 기사를 읽으며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과거 수년 동안 국내 건설산업의 모순과 불신, 나아가 相生의 산업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채 외형성장에만 치우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 '스캔들'은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내용(비자금, 담합, 부실시공 등)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년 간은 침체된 건설경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경제민주화(相生) 정착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건설업계는 자정노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相生과 共生の 참뜻을 이해하면서 갑오년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한다.

相生이란 뜻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공존하며 살아간다'이다. 우리 건설산업의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와 도급사(종합건설)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생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

속칭 '슈퍼갑'이라는 발주처는 예산절감과 시장경쟁논리를 내세워 직접 공사비도 안되는 실적 공사비로 예산을 책정하여 최저가로 발주한다. 최저가로 수주한 종합건설사(우리의 갑인)는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공사비를 책정한 후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가로 발주한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중소 제조기업 보호'라는 명분아래 건설의 기본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성격의 자재와 공종까지 관급 혹은 분리하여 발주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사 집행은 물론 준공 후 유지관리(하자)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종합건설사는

협력사를 지원하고 원가절감을 한다는 구실로 기술력이나 원가경쟁력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의 자재, 공사까지도 지급 분리함으로써 우리업을 '단순 기능인력의 공급 및 관리하는 회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업계의 기술개발과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풍토 아래에서의 '相生'은 허구에 불과하다. 발주처인 슈퍼갑과 종합건설사인 갑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현 사회가 요구하는相生(共生)의 진정한 의미를 실행해야 건설산업의 국제화, 선진화가 가능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相生이 경제민주화의 큰 틀이라면 우리의 영역이라 생각되는 共生을 이야기해 보자. 共生의 사전적 의미는相生과 뜻을 같이하나 '같은 곳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살다'이다. 여기서 나는 共生을 '우리업계의 상호협력과 단결됨'을 바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우리의 숙원인 분리발주에 대한 모 부처 장관의 견해가 실렸다. 내용을 소개하면, "전문업체의 자정노력(자가경쟁, 기술개발, 부실시공)이 없으면 소기의 목적(전문업육성)을 달성할 수 없기에 분리발주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조속히 확대되어야 하나 먼저 우리들의 저가주의 지양, 기술개발, 재무구조, 관리능력 등의 자정노력과 업계의 단합된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학자가 현대 사회의 共生共存을 다음의 우화로 예를 들었다. 이 우화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

어느 날 몸에 붙은 코, 발, 손, 눈, 입들이 모여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코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혼자 놓고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바로 입이라는 놈인데 그 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 다하고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에 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그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무거운 원인은 저 입이 혼자만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손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먹을 때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입은 날 보고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심부름을 시키고 자기만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보거나 냄새도 맡지 말고, 입에게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되어 즉시 입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손과 발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눈은 앞이 가물가물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코는 사방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웁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그 말에 다른 기관들도 수긍하고 예전처럼 자기의 맡은 일을 해서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그 동안 기여한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역할은 어디로 가고 불신과 갈등, 죽지 않기 위해 갑에게 대들고 을을 쥐어 짤 수밖에 없는 현실의 건설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우리모두 한번쯤 돌이켜 보고 共生共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격언과 같이 건설업계 모두가 단결된 모습으로 갑오년을 맞이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건설산업 전반은 물론 우리업계도 따뜻한 해가 될 것이다. 